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H O T

ISSUE

0 0 1

고병원성 AI 발생 후 재입식 절차

청정국 지위 확보위해 최소 3개월 소요

| 표1.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등 입식시험 단계별 조치사항 |

단계별	준비사항 및 조치사항
1단계 (시험입식준비)	<div><div>관할 시·군에서 시험가축 입식에 따른 제반사항 계획수립</div><div>시험가축 입식전 발생농장 등에 대해 입식시험과 관련한 설명회 개최 등 충분한 지도·교육 실시</div><div>방역조치요령, 협조사항 및 세부추진계획</div></div>
2단계 (농장소독)	<div><div>시험가축 입식전 발생농장 등에 대한 청소 및 소독실시</div><div>소독대상 : 축사내외, 진입로, 농장내 사택, 축산기구 등 농장과 관련되는 모든 것</div><div>※ 기본적으로 '제4장 6.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되 축사바닥, 갈라진 틈 등에 존재하는 분뇨 및 오물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브러쉬, 수세미 등을 소독액에 담가 가면서 세척·소독작업을 실시하고, 축사전장 등은 고압세척기(분무기)를 이용하여 소독액에 축사가 완전히 젖도록 할 것이며, 축사내는 훈증소독 실시</div></div>
3단계 (시험가축선정)	<div><div>시험가축 선정 및 구입</div><div>입식품종 및 연령 등 입식가축의 제반조건 검토·확인</div><div>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6~12주령 병아리를 선정</div><div>구입예정 가축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혈청검사 등 실시</div></div>
4단계 (시험입식농장점검)	<div><div>시험가축 입식전 발생농장 등에 대한 점검실시</div><div>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소·소독상태 및 시험축 최종 임상 확인점검</div><div>※ 농장 점검결과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오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입식시험 추진</div></div>
5단계 (시험가축임상검사)	<div><div>시험가축에 대한 정기적 임상관찰 및 점검표 작성·기록유지</div><div>축사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점검표 기록관리</div><div>입식후 14일까지 2일간격, 15일부터 21일까지는 주2회 실시</div><div>임상관찰기관 : 관할 가축방역기관(축산위생연구소 등)</div><div>※ 조류인플루엔자 유사증상 발견시 해당 시·군, 시·도 및 검역원에 신속보고(통보)</div></div>
6단계 (시험결과조치)	<div><div>시험가축 입식시험 종료 즉시(3주 후) 시험축에 대한 혈청검사 의뢰 및 검사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재입식 조치</div></div>

※입식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살처분 농가에 대하여도 발생농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철저하게 소독하고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오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입식 허용

5차례 발생 중 가장 피해 클 듯

금년 1월 17일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3개월이 지난 1월 19일 경기도 이천에서 AI가 발생하는 등 아직 AI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달에는 북한과 일본에서도 AI 발생소식이 전해지면서 양계인들의 마음을 더욱 짓누르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AI는 지금까지 5차례 발생한 것 중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가장 피해가 컸던 2008년에는 비록 42일만에 AI가 종식되었지만 전국에서 42건이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1,500농가에서 1,020만수가 살처분되면서 3,07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금년에는 발생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미 전국에서 34건이 발생되었고 주변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언제 끝날지 아직 가늠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다. AI에 따른 매몰처분 수도

494농가에서 1,270수가 매몰되면서 역대 가장 많은 가금이 매몰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AI발생원인 및 대응책 마련 시급

매몰처분된 닭들로 인해 수급불균형도 크게 나타나면서 언론에서는 마치 양계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듯 비춰져 농가들을 더욱 어렵게 하기도 한다. 병아리가격 역시 고공행진을 하면서도 입식열기가 뜨거워 향후 불황이 일찍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AI가 이제는 발생되었던 지역에서 간간히 나타나면서 이제 종식이 가까운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더 이상의 발생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제는 적절한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 대책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발생한 AI가 정확히 어떻게 유입되었으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전파가 이루어졌는지? 무조건적인 살처분 정책, 금년 처음 적용된 스탠스틸(일시이동중지명령), 삼진아웃제 등이 과연 AI확산방지에 도움이 되었는지? 등등 풀어가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AI 종식 언제 되나?

우리는 이제 AI종식 후 양계산업 안정화를 걱정해야 한다. AI 발생이 없을 경우 농가들은 3개월 후에 청정국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농가들이 재입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면 청정국 지위 확보 조건이 확보되는 것이다.

발생지역에서 농가들이 재입식을 하기 위해서는 「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실린 사후관리와 재입식 요령을 따르면 된다.

AI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다시 재입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즉, AI의 최대 잠복기가 3주이기 때문에 최종 살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추가 발생이 없으면 3주 후에 위험지역은 경계지역으로 전환되고, 이후 1달간의 상황을 지켜본 후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 조치가 추가로 해제된다. 이동제한 조치가 풀렸다고 해서 AI발생지역에서 재입식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동제한 조치가 풀린뒤 21일간의 입식시험을 거쳐야 하고 시험 사육한 뒤 검역원에 21일간의 정밀검사를 받은 후에 비로소 입식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추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지난 4월 19일 경기 이천지역에서 마지막 발생되었다고 하면, 3km이내 가금산물을 모두 폐기처리한 4월 22일부터 최소 3개월이 흐른 7월 22일 경에야 비로소 입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동시에 AI 청정국 지위도 확보된다고 보면 된다.

그 후에는 수출이 막혔던 국내 닭고기가 다시 수출재개 절차를 거쳐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고병원성 AI는 우리 곁을 떠날 때가 된 듯하다. 이번 에 사라지면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

(사)대한양계협회 홍보부장 김동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애도와, 실종자 무사생환을 기원합니다.

追

삼가 고인들의 영정에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의 슬픔에 위로를 드립니다.

慕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 (사)대한양계협회 | (사)한국계육협회 | (사)한국토종닭협회 | 농협중앙회



(사)대한양계협회
연진희 종계부화분과위원장

지난 4월 9일 (사)대한양계협회 제20대 종계부화분과위원회에서는 연진희 대표(쿨바 이오 농장)가 신임 위원장이 선출되었다. 연진희 위원장은 당선 소감으로 앞으로 당면한 현안을 위원장 단독 결정이 아닌, 의원들이나 임원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풀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진희 위원장은 30대 후반인 1995년부터 양계업에 뛰어들었다. 이전에는 금융기관에 다녔는데 예금하러 오는 양계인들과 자주 접하다 보니 닭사육에 대한 매력을 느껴 이 길로 들어섰다고 한다. 종계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6년이다. 양계업을 사육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2010년도에 병아리값 시세가 좋을 때는 그래도 이 직업을 택한 것이 참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300개나 되던 전국의 부화장이 30여개로 줄어든 정도로 종계·부화업이 힘들어지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말도 전했다.

연진희 위원장은 “양계업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도 삶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잊지 않았다. 양계농가들의 2세들도 자부심을 갖고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산업적인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는 그의 말에서는 양계업에 대한 사랑도 느낄 수 있었다.

연진희 위원장의 종계부화위원회 운영계획 및 자조금 활성화 방안을 들어봤다.



연진희 종계부화분과위원장은 종계 2만 8천 수 규모의 종계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뷰

양계산업 종사자 모두를 위한 자조금사업에 적극적 동참 당부

계열사와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종란납품표준계약서를 완성해 나갈 것
AI 매몰처분으로 인해 입식제한된 농가에 대한 이자상환 유예제도 필요

■ 종계부화분과위원장에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현재 종계부화분과위원회의 가장 큰 현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우선 종란납품표준계약서를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계부화분과위원회는 지난 18대 최성갑 위원장 시절 6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이미 종란납품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농가의 사육원가와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고려한 계약서였으나 계열사와 의견조율이 안 되어 채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계열사와 충분히 토론했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종란납품표준계약서(병아리납품표준계산서 포함)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급조절을 위한 종계쿼터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개인종계장의 사육권 사수가 어려운 실정이라서 종계장 신규진출에 대한 차단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종계를 사육하고 있는 전업농을 육성하여 독창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병아리 품질도 향상시키고 농가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부화장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화중지란이나 무정란 같은 부화장 폐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법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부화장에서 나오는 무정란이나 부화중지란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현재 산업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것을 축산부산물이나 축산폐기물로 분류되도록 하는 법제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화장 내의 폐기물들은 충분히 사료나 비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대학교수나 자문단에게 자문을 구해 이를 축산폐기물이나 축산부산물로 법제화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부화장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통해 어느 정도 병아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색에 맞는 병아리 품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 규모의 부화장을 보다 많이 육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규모 부화장의 경우 한 번 질병에 노출되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업

계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나, 중소 규모의 부화장은 발 빠르게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 AI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한 지원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미 정부에서는 살처분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등 다양한 AI 보상방안을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농가에게 필요한 조치는 금융기관의 이자상환 유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금융기관은 AI 살처분으로 인해 입식을 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는 하고 있지만, 이자상환 유예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게는 6개월 동안 병아리 입식을 하지 못하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소득이 없는 상황이므로 은행의 이자를 갚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 이자를 감면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자상환을 병아리 입식이 가능한 시기부터 재개하는 식으로 이자를 유예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닭고기자조금거출을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축산자조금법에 의하면 닭고기자조금은 도계장에서 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조금 거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계장이 적극적으로 자조금사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가와 계열사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자조금 사업에 참여하길 바라며, 육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해 가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자조금사업은 닭을 사육하는 농가뿐만 아니라, 계열사에게도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조금사업은 연구용역, 소비촉진, 교육사업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한 예로, 사업계획을 통해 도계장 내의 장비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닭고기자조금은 그 활용방안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따라서 모든 양계산업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조금 거출에 동참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HOT
ISSUE

0 0 2

한국계육협회, 서울백병원과 함께 국산 닭고기 시식회 개최

닭가슴살에 많이 함유된 이미다졸 디펩티드(피로회복 물질) 소개



서울백병원 최석구 병원장이 계육협회가 마련한 닭고기시식회에서 삼계탕을 맛있게 먹고 있다



닭춘쿠기를 통해 치킨상품권을 당첨받은 백병원 소속 의사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사)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는 지난 4월 9일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내 구내식당에서 병원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산 닭고기 시식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닭가슴살에 들어있는 피로회복 물질인 이미다졸 디펩티드에 대한 최신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닭고기에 대한 새로운 소비시장을 창출하고 AI에 대한 잔존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사)한국계육협회 관계자는 이미다졸 디펩티드가 조류의 날개를 움직이는 가슴살 부분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철새가 2주 이상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전했다. 오사카 시립대학 연구팀의 실험결과에서는 이미다졸 디펩티드가 피로 회복과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사)한국계육협회는 백숙데이를 맞이하여 서울백병원 최석구 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사들과 임직원 500여 명에게 국산 닭고기를 이용한 삼계탕을 점심으로 제공하며 닭가슴살의 항피로 효과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백숙데이는 매년 4월 9일 백숙을 먹고 백수(白壽)를 누리자는 의미로 축산업계에서 지정한 삼계탕 먹는 날이다.

또한 (사)한국계육협회는 점심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닭고기의 효능이 적힌 '닭춘쿠기'를 배포하고, 즉석 추첨을 통해 치킨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다.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전문의 강재현 박사는 "이번 시식회를 통해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닭가슴살에 함유되어 있는 피로회복 물질인 이미다졸 디펩티드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자 이번 시식회를 마련했다"며 "회복 중인 환자들에게 닭고기는 영양 공급원으로 적극 추천하는 식품인데 여기에 피로회복 물질까지 함유되어 있는 만큼 피로해지기 쉬운 봄철 닭고기로 건강을 챙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한국계육협회 정병학 회장은 "이번 닭고기 시식회를 통해 병원 내 의사를 비롯한 임직원들 및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학 정보와 함께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닭가슴살의 새로운 효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닭고기에 대한 새로운 시장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AI대책특위, AI 발병원인과 방역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환경안전건강연구소, 민관공동 방역체계 구축 및 AI보상체계 개선 필요성 주장

새정치민주연합AI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 AI 발병원인과 방역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춘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AI대책특별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그동안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출하포기 가금류에 대해 수매할 것과 삼진아웃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몰처분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방역대책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장은 'AI방역정책의 문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

로 AI방역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계열화 지원금을 받은 전문 판매업자들이 도계장과 가까운 사육농가와 계약을 통해 사료비와 시설비를 선지급하고 닭과 오리들을 공급받고 있으므로, 판매업체 도계장 주변으로 닭과 오리 사육농가가 집중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물류 및 생산비가 감축되는 효과가 있으나 AI위험성에 노출되고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사육농가가 떠맡게 되는 구조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AI 감염증상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실패로 인해 조기 발견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연구소장은 AI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

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역체계 자체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민위기관리위원회(가칭)'을 통해 민관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며, 지역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수 연구소장은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한 방역대 설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GIS를 활용하여 지리적 특성, 차량 및 사람의 이동, 사육형태, 기상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AI 보상금 차원에서는 현재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시점에서 보상

금의 대부분을 계열업체에서 사료 등의 비용으로 지급되고 축산농가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야생조류 AI 바이러스 유입설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밀집사육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가금류의 건강상태로 인해 AI가 확산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사)대한양계협회 전북도지회 이희완 전무는 이동제한조치에 대한 피해보상금이 환경부 예산으로도 반영되어야 하며, 밀식사육의 경우 출하를 앞둔 며칠만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AI 확산의 근거로 삼는 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농축산부, 농가들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개선안 추진

보험요율 표준화 및 보험료 분할납부제 도입, 환급분에 대한 지급이자율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부)는 축산농가의 부담경감과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보험금의 불법수령 등에 따른 축산농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씻어주는 한편, 축산농가에게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

면서도 각종 재해나 사고로부터 농가보장은 한층 강화하는 등 상품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농축산부는 보험가입자를 위해 보험요율을 표준화하고 보험료 분할납부제를 도입하여 농가의 부담경감 및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지금까지 보험사별 보험요율 기준이 달라 가입농가의 혼선을 초래했던 점을 개선하여 보험

요율체계를 표준화한다는 것이다.

둘째, 보험사의 착오로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할 보험금에 적용하는 지급이자율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험사 잘못으로 보험금이 늦게 지급된 경우에는 지연 이자율에 대해 너무 낮게 적용하던 보험사의 '정기예금이자율' 관행을 보험개발원의 '보험계약 대출이자율'로 개선하여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셋째, 각종 보험사기에 대비한 상호협력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보험사업자에 대한 사업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금년부터 보험사별 '보험사고 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하여 보험사고 위험 예방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험관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보험금 불법수령 사고 등에 대해 관계기관 간에 협업을 통해 상호 협력하며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HOT
ISSUE

0 0 3

한국토종닭협회, AI 안전성 홍보 및 토종닭 소비촉진 캠페인 개최

토종닭 시식회, 경품이벤트, 퀴즈풀기 통해 AI 및 토종닭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토종닭협회 김연수 회장이 AI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토종닭의 영양학을 소개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토종닭에 대한 상식퀴즈를 맞추고 토종닭선물시트를 받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토종닭싸움왕 선발대회 참가자들이 치열하게 닭싸움을 펼치고 있다



토종닭협회는 토종닭싸움대회 우승자에게 태블릿PC를 증정했다



AI 안전성 퀴즈를 문자메세지로 푸는 코너는 젊은층들의 참여가 높았다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는 지난 4월 11일 서울시 동대문 굿모닝시티 앞에서 'AI 안전성 홍보 및 토종닭 소비촉진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사)한국토종닭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AI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닭고기의 안전성을 홍보하고 토종닭 시식행사를 통해 토종닭의 맛과 영양학적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되었다.

캠페인에는 농협중앙회, (사)한국토종닭협회,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계육협회 및 닭고기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해

토종닭 소비촉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김연수 회장은 "AI에 걸린 닭은 시중에 절대 유통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2003년부터 2014년까지 AI가 5차례 발생했지만 국내에서는 한 번도 인체 감염된 사례가 없으므로 닭고기를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당부 말을 전했다.

(사)대한양계협회 오세을 회장은 "AI에 대한 잘못된 보도로 인해 닭고기 소비가 침체되고 있다"고 전하며 "닭고기는 오히려 국민의 건강식품인 만큼 국산 닭고

기와 토종닭을 많이 사서 먹으며 가족의 건강까지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한국계육협회 정병학 회장은 "AI에 걸린 닭은 전부 매물처분되므로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밝히고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닭가슴살에 피로회복 물질이 발견된 만큼 닭가슴살 많이 먹고 생활의 피로를 거뜬히 이겨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사)한국토종닭협회는 AI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물을 전신해 서울 시민들에게 AI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했

다. 또한 리플렛 제공이나 경품이벤트 등을 통해 토종닭에 대한 상식을 제공하고 토종닭의 영양상식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 유명 비보이 공연, 토종닭싸움왕 선발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번 캠페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AI에 대한 과잉보도로 혼란스러워하는 소비자들에게 AI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토종닭과 국산 닭고기의 소비가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만서도 별그대 인기로 치맥 열풍 이어져

인터넷 쇼핑몰,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한국식 치킨 인기 상승 중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가 중국에 이어 대만에서도 인기를 얻으며, 치맥이 대만 젊은 층으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별그대의 극 중 여주인공이 치킨을 먹는 장면이 화제가 되면서 한국식 치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대만 야시장의 대표간식인 대만식 치킨은 한국식 치킨과는 달리 튀긴 치킨가

스의 형태다. 하지만 코트라 타이베이 무역관에 따르면 별그대의 인기로 최근 양념을 더한 한국식 치킨과 맥주의 조합인 치맥이 대만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대만 내 치킨호프전 문점은 손에 꼽을 정도이나 기존 점포의 분점 계획 및 한식 퓨전음식점 창업에 대한 의향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쇼핑몰, 편의점 및 대형매장 등에도 한국식 치킨이 등장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대만 현지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에서는 치맥의 인기를 계기로 한국식 치킨 상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아 매일 치맥 평균 판매량이 1만개에 달할 정도라고 한다. 사실 한국식 치킨 상품은 작년 말 출시됐으나 안주용 상품 중 최하위 매출을 보일 정도로 그동안 인기가 없었다고 세븐일레븐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나 별그대 방영 이후, 급속도로 판매되기 시작해 1월 대비 2월 총 매출액이 30%나 상승했다고 한다.

대형마트에서도 한국식 치킨의 인기

는 이어지고 있다. 대만의 대형유통매장인 '아이마이'에서도 한국식 치킨을 출시하자 2주 만에 5천개의 상품을 판매했다.

최근 '치킨의 본고장' 대구시에서는 별그대와 연관지어 중국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치맥 여행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발 빠르게 기획·진행되는 닭고기 소비촉진 활동을 통해 앞으로 닭고기 소비가 회복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 : 코트라 글로벌원도우&농수산식품 수출지원정보〉

농협경제연구소, 육계 계열화사업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용역 발표

계열사와 농가의 상생을 위한 농협목우촌의 선도적 역할 강조

육계 계열화사업 95% 달성

농협경제연구소는 지난 2월 19일 ‘육계 계열화사업 참여농가의 사육성과 평가 유형별 비교’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이번 연구가 육계 계열화사업 참여농가의 사육성과 평가 유형별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평가유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 육계 계열화 사업은 축산업계 중에서 계열화 사업을 가장 먼저 도입하였으며, 현재 전체 생산의 95%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육계 계열화 사업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탁 사육으로 인해 계약서 분쟁 문제, 병아리 질병 및 폐사 문제, 사료 품질 문제, 사육 보수 문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열농가는 계열업체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육계 사육성과 평가 유형

특히 사육 보수 정산을 위한 평가에 있어서 계열업체마다 다른 유형을 채택하고 있어서 계열화사업 참여농가는 많은 애로사항을 표출하고 있다.

육계 사육성과 평가 유형에는 상대평가, 부분상대평가, 절대평가 3가지 평가 유형이 있다. 이중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대평가는 15일 간의 출하 물량을 기준으로 상·하위 성적의 10%를 제외한 평균 사료요구율과 평균출하 중량을 산정하여 정산하고 있다. 절대평가는 다른 농장의 성적과 관계없이 계열업체에서 정한 일정기준에 따라 사육보수를 지급하는 유형이다.

사육보수 정산을 위한 평가유형 발전 방안

농협경제연구소는 계열업체와 사육농가의 입장을 정리해 사육보수 정산을 위한 평가유형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한국형 육계 계열화 평가 유형 지

표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상대평가는 미국의 평가유형을 그대로 적용하여 국내의 계절적 요인에 잘 맞지 않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계절적 요인도 고려한 한국 실정에 맞는 평가유형 지표가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둘째, 사육환경을 고려한 평가유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상대평가에서는 시설이 좋은 무창계가 높은 사육보수를 얻을 수밖에 없으므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육형태별로 평가유형을 적용하여 같은 계사 형태 별로 성적을 산출하는 평가유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의 상대평가 상·하위 10% 제거 후 평가하는 유형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하위 1%의 극단적인 자료만을 평균 산출과정에서 제외시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농가들의 불만이 높다고 한

다. 따라서 상·하위 비율을 체계적으로 1~5%만 제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계열업체의 동의를 전제로 함)고 농협경제연구소는 밝혔다.

넷째, 원자재(병아리·사료) 품질 개선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병아리와 사료의 선택권이 계열업체에게 있는 상황에서 계열업체는 품질을 통한 경쟁이 아니라 양적 경쟁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계열업체가 제공하는 병아리의 품질이 낮아서 사육농가와 계열업체 간 분쟁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열업체가 원자재의 품질향상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 우수한 원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섯째, 농협목우촌도 육계 계열화 사업의 발전과 육계농가와의 상생 협력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본 기사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육계질병가이드 / 소독제 선택과 바이러스 외피

Q. 바이러스에는 외피가 있는 바이러스와 없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 종류 중 어떤 바이러스가 소독제에 더 잘 작용하는지요?

A.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양계에서는 고병원성AI, 양돈에서는 PED로 인해 축산업계 전체가 큰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관계기관이나 농가에서 소독제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육계농가에서 소독 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주요 질병은 뉴캐슬병(ND), 전염성기관지염(IB), 고병원성AI, 감보로병(IBD), 아테노바이러스 감염증(봉입체성간염, 심낭수종증) 등 소독과 백신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바이러스 질병입니다. 이중 뉴캐슬, 전염성기관지염, 고병원성 AI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입자를 싸고 있는 외피(겉질)가 있고, 감보로병과 아테노 바이러스는 외피가 없는 바이러스입니다.

얼핏 생각할 때는 외피가 있는 바이러스가 소독제에 강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외피가 있는 바이러스가 오히려 소독제에 약하고 외피가 없는 바이러스가 소독제에 강합니다. 이는 외피가 지방성분

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방을 분해하는 비누나 세정제, 계면활성제 등에도 쉽게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감보로병이나 아테노바이러스는 외피가 없는 바이러스이므로 소독제에 쉽게 죽지 않고 계사에 오염 시 오랫동안 생존하여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소독제의 선택에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육계농가에서 최근 파스에서 이 두 가지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면 소독을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실시하기 전, 내가 사용하는 소독제가 이 질병에 효과적인지, 희석배수는 얼마로 하여야하는지, 실험적으로 검증된 제품인지에 대해 수의사나 소독제 제조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은 필드 수의사와 상의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powerseeker@hanmail.net로 문의해주세요.

〈제공 : 고려비엔피 정윤석〉

(주)마니커, 92% 닭가슴살 구이육포 출시



지금까지의 닭고기 육포 중 닭고기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이 (주)마니커에서 새로 나왔다.

(주)마니커는 지난 4월 1일 국내산 닭고기만을 사용한 닭가슴살 구이육포(50g)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

(주)마니커 닭가슴살 구이육포는 함초에서 추출한 함초자염으로 맛을 내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며, 담백한 저염 제품과 매콤한 매운맛 제품 등 2종이 있다.

기존 닭고기 육포는 닭고기 함량이 70~80대% 정도인데 비해 (주)마니커 닭가슴살 구이육포는 지금

까지 출시된 제품 중 닭고기 함량이 가장 높은 92%이다. 따라서 닭고기 특유의 맛을 가장 잘 느낄 수 있으며, 씹는 질감과 맛이 기존의 타 축종 육포에 비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주)마니커는 이번에 닭가슴살 육포 제품을 출시하면서 사용자 편의까지 고려했다고 전했다. 기존의 닭고기 육포는 일일이 잘라 먹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주)마니커의 닭가슴살 구이육포는 먹기 편하도록 한 입 크기로 잘라 포장하는 등 사용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도 돋보이는 제품이다.

(주)마니커 관계자는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닭가슴살 구이육포는 간단한 술안주나 야외활동, 파티 등 언제 어디서나 출출할 때 즐길 수 있는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주)마니커 닭가슴살 구이육포는 각 지역 마트와 마니커몰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단체소식 양계관련단체 업무추진 활동

(사)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

신임 임원진을 선출한
종계부화분과위원회의 모습

위원장에 연진희 대표 선임

지난 4월 9일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연진희)는 천안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신임 위원장에 연진희 대표(쿨바 이오농장)를 선임하였다. 이날 연진희

위원장은 “당면 현안과제 해결과 종계부화인의 단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부위원장은 신현민 대표(구민종계장, 당진종계지부장)가 선임되었다.

원로 양계인과의 간담회

오세을 회장이 간담회를 열어 원로 양계인들에게
양계협회 운영방안에 대한 고견을 들었다

양계산업 안정화 당부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지난 4월 18일 협회 사무실에서 원로양계인들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양계업계 현황과 협회 운영방안에 대한 고견을 들었다.

오봉국 고문(서울대 명예교수)을 비롯한 원로 양계인들은 20대 회장을 맡게 된 오세을 회장에게 AI발생 등 어려운 여건에서 양계업의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강조하고 3년 동안 양계인

이 잘 살고 양계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협회를 잘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오세을 회장은 역대 선배님들의 뜻을 받들어 대화와 소통으로 수급조절과 안정화에 중점을 두어 협회 및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원로 양계인들은 오봉국 고문을 비롯, 최준구 전회장, 장대석 전회장, 심준식 전부회장이 참석하였다.

(사)한국계육협회



2014년도 제1차 농가협의회 개최

육계 사육농가 분과위원회 구성 및 유효
종계주령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

육계 사육농가 분과위원회 구성

(사)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는 지난 4월 16일 대전 유성 아드리아호텔 수라홀에서 2014년도 제1차 농가협의회를 개최하고, 협회 내에 육계 사육농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회에는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동우, 사조인티그레이션, 성화식품, 한강씨엠 등 7개 회사의 농가협의회장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협회 내에 육계사육농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향후 정기적인 모임

을 통해 육계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여 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간에 서로 상생 발전기로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종계유효 주령 준수 및 표준계약서 유효 종계주령 변경사항과 관련 농가협의회 회장들은 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해 5월부터 종계주령 68주 내에서 생산된 병아리 공급을 요구하고 내년부터는 64주 내 생산병아리를 공급받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들을 제시했다.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 실무추진단 회의 개최

원종계 수입 및 종계분양 등을 당초
약속한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닭고기 수급상황 및 방안에 대해 논의

(사)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는 지난 4월 21일 경기 분당 소재 수의과학회관 5층 회의실에서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AI 발생으로 종계 살처분 및 종란 폐기에도 불구하고 환우 등을 통한 생산 연장 등으로 전년보다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크게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원종계 수입 및 종계분양 등을 당초 약속한 수준을 유지

키로 했다.

또한 표준계약서 명시된 68주령이내 종계에서 생산한 병아리만 공급토록 권고하고, 2015년부터는 64주령이내 종계에서 생산한 병아리만 공급토록 변경을 검토하여 이를 위반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패널티를 부여하여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무등록 종계장은 형사고발 및 질병에 의한 살처분 보상금지원에서 제외

시킬 것 등에 의견을 모았다.

한편,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 실무추진단은 (사)한국계육협회 박상연 부회장을 단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서재호 서기관, (사)대한양계협회 황일수 상무, 하림 권정택 상무, 삼화원 중 이상배 대표, 한국원종 이수범 대표, 청정원종 김봉진 대표 등 원종계 4사 대표와 간사로는 (사)한국계육협회 김한웅 상무로 구성되어 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이사회 개최



2014년 정기총회를 서면결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이사회의 모습

본 협회 이사회의가 지난 4월 11일 오전 11시에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AI발생으로 인해 2월에 개최되어야 할 정기총회가 4월 현재까지 개최되지 못함에 본 협회 이사회의에서는 AI종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기총회를 계속 미룰 수가 없어 2014년 정기총회는 서면

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정기총회자료는 지난 4월 17일 전 대의원님들께 발송되었으며 30일까지(협회 도착)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본 협회 제 26조에 의해 과반수이상의 승인이 서면으로 승인 시 모든 안건은 자동 승인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건국대학교, '강창원 기념 강의실' 현판 제막식 진행



강창원 교수, 20여 년간의 가금학 분야 연구와 후학양성 공로 인정받아

‘강창원 기념 강의실’이 생겼다.

건국대학교는 가금학 분야 연구와 후학양성을 위해 발전기금과 장학기금 1억 원을 기부한 강창원 명예교수(동물자원학)의 뜻을 기려 동물생명과학대학 710-3호 강의실을 ‘강창원 기념 강의실’로 명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2일에는 이를 기념해 ‘강창원 기념 강의실’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강창원 교수는 제막식에서 “학창 시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장학금을 받아 무사히 대학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을 되새기면서, 어렵지만 열정을 가지고 미래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제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었다”며 “학생이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내가 제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송희영 총장은 “재직기간에도 뛰어난 연구 성과와 함께 학교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강창원 교수는 건국대학교 축산학과 68학번으로 미국에 건너가, 위스콘신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존스홉킨스대학교와 사료제조사인 램스턴퓨리나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이후 대학시절 은사인 정길생 전 건국대학교 총장이 후학양성에 힘써달라는 말에 고국으로 돌아와 1992년부터 건국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2013년 8월 정년퇴임까지 후학양성에 힘을 쏟았으며 동물자원 관련 저서와 학술지를 펴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한 ‘건국대 닭고기 수출연구사업단’의 단장을 역임하면서 국산 닭고기수출 경쟁력을 향상 및 닭고기수출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였다. 강창원 교수는 그가 이끄는 사업단의 연구성과와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식품 수출산업시책 유공자로 선정되어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닭고기자조금 거출기준 및 납부절차



닭고기자조금규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축산자조금회계법령(제2009-11호)'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양계농가 사육하고 있는 농가라면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닭고기자조금은 '양계산'을 발전시키기 위해 농가들이 낸 많은 제막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닭고기자조금 납부 현황은 소식지와 닭고기자조금 홈페이지(www.ichicken.or.kr) 자조금 납부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가출하

육계, 삼계, 토종닭, 육용종계 도계장으로 출하



거출금 징수 위탁

수납기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작업장 (수납기관은 농가의 자조금 납부 의사에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법 제 19조제2항)

거출금 징수

수납기관 : (도계되는 전수에 대하여 도계장에 의무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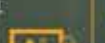
농가직접납부

도계수를 기준으로 농가가 직접 자조금 납부. 자조금 송금 후 관리위원회로 연락 필수



거출금 송금

수납기관 또는 농가가 직접 관리위원회에 납부 (수납 익월 20일 까지)



고지서 발송

관리위원회에서 수납기관 (도계장)



[거출시작일]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수납기관]

전국 도계장 대표자

[거출금액]

육계 5원, 삼계 3원, 토종닭 10원, 육용종계 30원(수당)

[농가직접납부 계좌번호]

농협 301-0017-6070-01 (예금주 :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Today's
맛 있는
닭고기 요리

닭 가슴살 허브버터구이

허브버터의 재료로 쓰이는 파슬리는 식중독 예방, 내분비병 예방과 간기능 강화에 효능이 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시대에는 식중독 예방과 숙취제거에 없어서는 안 될 채소로 귀중히 여겨졌으며, 각종 비타민도 풍부하다.

재료 날개달린 닭 가슴살 1쪽, 슬라이스 치즈 1장, 슬라이스 햄 1쪽, 버터 50g, 다진 파슬리 1큰 술, 레몬 1/4쪽, 빵가루 1/2컵, 밀가루 1큰 술, 계란 1개, 소금, 후추, 가래가루 약간, 튀김감자 100g, 튀김용 식용유, 디아블 소스 1/2컵

Cooking

1. 닭 가슴살 첫 번째 날개 뼈만 남기고 나머지 뼈와 껍질을 제거한 후 남긴 뼈가 떨어지지 않도록 살을 얇게 펴고 소금, 후추로 간을 한다.
2. 크림 상태의 버터에 레몬즙, 카레 향, 다진 파슬리를 섞어 허브버터를 만들어 놓는다.
3. 허브버터를 치즈로 말고 다시 햄으로 둥그랗게 만 다음 얇게 편 닭 가슴살 속에 넣고 고추 모양으로 만들어 밀가루와 계란, 물, 빵가루를 차례로 옷을 입혀 고추모양을 유지한다.
4. ③의 닭 가슴살을 180~200℃ 식용유에 황금색이 나게 튀긴 다음 오븐에 넣어 완전히 익힌다. (오븐사용이 번거로운 때는 튀김기름 온도를 약하게 하여 두 번에 걸쳐 튀겨낸다.)
5. 접시에 디아블 소스를 먼저 깔고 닭고기를 4~5등분으로 잘라 보기 좋게 담고 감자튀김을 곁들인다.

〈제공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퀴즈 낱말맞추기

1		14			15
2	3				
			13	12	
4		6		11	10
		7	8		
5			9		

◇ 가로풀이

- ②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기름
- ④ 이름을 적지 않음
- ⑤ 등에 불을 켜
- ⑦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나 남을 해치기 위한 계락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⑨ 예전에 장이나 길거리로 돌아다니면서 장타령을 부르던 동남아치
- ⑪ 밀가루반죽에 설탕으로 소를 넣고 번철이나 프라이팬 따위에 둥글넓적하게 구워 낸 중국식 떡
- ⑬ 어떤 자리에 참가하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음
- ⑭ 큰 역에만 정착하는, 운행 속도가 빠른 열차

◇ 세로풀이

- ① 가축을 기르기 위해 외부에서 농장에 들임
- ③ 두 개의 금속·유리·플라스틱 따위를 용접할 때 쓰는 기구
- ④ 실점이 없음
- ⑥ 성명·주소·직업·신분 따위를 적은 네모난 종이
- ⑧ 틀림없는 바로 그 시각
- ⑩ 가래떡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여러 가지 채소를 넣고 양념을 하여 볶음 음식
- ⑫ 아전에서 몸을 숨기면서 적과 싸우기 위하여 방어선을 따라 판 구덩이
- ⑭ 비행기, 배, 자동차 따위에 연료를 보급함
- ⑮ 자동차, 기차, 전차 따위의 차량을 넣어 두는 곳

70호 정답

10	류	느		을	묘
쑈		로	로		류
바	호		로	12	古
	로	로		로	
21			상	용	iv
14	로	로	은		로

양 계
비법전수계군 출하 후에 효과적인
세척방법은?

건물소독은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약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건물을 충분히 적셔 유기물이 완전히 탈락될 수 있도록 하고, 고압세척기를 써서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소독제를 살포하여 청소한다. 수세는 고압분무기(50kg/cm²)나 뜨거운 물을 이용하여 흠뻑 적신 몇 시간 후에 실시한다. 먼저 창문과 전등갓을 실시하고, 지붕안쪽과 벽체상층부, 벽체상층부

로부터 하부까지, 최종적으로 바닥을 실시한다.

기구는 급수기, 급이기 등을 흠뻑 적신 후에 유기물질을 제거하고 거품총과 같은 장비나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계면활성제가 포함된 소독제를 살포한다.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행균을 실시한다. 최종 행균 이전에 이동 가능한 기구 등은 소독제에 24시간 동안 잠기게 두는 것이 좋다. 수세가 끝난 장비는 콘크리트 바닥

에서 건조시킨다.

사료빈은 찌꺼기를 긁어낸 후에 연기를 이용한 곰팡이소독제를 살포하고, 온풍장치 및 환기구에는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연막소독제를 이용한다. 그리고 주변건물 및 이동통로에는 가성소다(100kg/1000m²) 살포 및 생석회(400kg/1000m²)를 이용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닭기르기 100문100답'〉

AI의심축 신고전화(1588-4060)

방문자 등 외부인

- ⇒ 농장출입구에 '방역상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 ⇒ 발판소독조, 분무소독시설 설치, 운영
- ⇒ 외국인의 가금류농가 출입제한
- ⇒ 동물약품·사료·채혈요원 등 방문자의 사전 약속 및 청결한 의복·신발 착용
- ⇒ 계사 출입 시 깨끗한 방역복·장화를 착용하고 출입문에서 장화 침지 소독

출입차량

⇒ 모든 차량은 농장 출입구에서 세척 및 소독 실시

농장주, 관리인 등 농장근무자

- ⇒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자를 철저히 통제
- ⇒ 계사출입시 발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생활화
- ⇒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 가축시장, 부화장, 집하장, 도계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의 방문 자제
- ⇒ AI발생국 여행 자제(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철저한 소독 및 교육 실시
- ⇒ 살충 및 구제(쥐잡기) 실시

